

1950년대 소설 속 명동족의 표상*

김 주 리**

요약

본고는 1950년대 명동족 표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후 사회, 새로운 가치와 윤리의 탐색이 가진 의미를 세대와 젠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 대중문화에서 명동은 소비와 향락의 퇴폐적인 공간이자 문화예술인의 낭만이 교차되는 공간이다. 50년대 명동거리의 최첨단 유행과 소비문화를 즐기며 기성 윤리에 의 도전과 새로운 질서예의 탐색을 실천한 명동족, 명동형 인간은 다양한 대중소설에서 특징적인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 장덕조의 『격랑』, 한무숙의 『빛의 계단』, 김래성의 『실낙원의 별』, 이무영의 『계절의 풍속도』 등 1950년대 다양한 장편소설에서 명동족, 명동청년, 명동형, 명동숙녀를 둘러싼 사건들은 일상을 선정적인 구경거리로 재편해 보인다. 이들 소설에서 명동청년은 명랑성-현대성과 불량성-도피성 사이에서 유통하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이들은 기성 사회에 맞서 자유로운 개인의 욕망을 드러내며, 교환 논리에 입각해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화려한 스타일의 명동 마담들은 이봉구의 「여수」나 임옥인의 『젊은 설계도』 등에서 문화인의 계몽적 위치와 선정적인 구경거리의 위치 사이에서 균열하면서 미적 세계의 꿈을 환기한다.

주제어: 명동족, 명동청년, 명동마담, 구경꾼, 『빛의 계단』, 『격랑』, 『실낙원의 별』, 『젊은 설계도』

* 이 논문은 2020년도 국립한밭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목차

1. 서론
2. 전후 자본주의 현실 속 명동의 장소성과 명동족
3. 명동 청년의 불량성과 현대성
4. 명동 마담의 선정성과 계몽성
5. 결론

1. 서론

이무영은 1950년대 신문연재소설에 대해 평하면서 경제, 문화의 모든 부분이 농촌이나 농민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져 도시 중심, 서울 중심을 나타내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民國이라는 用語까지 낳게”된 상황을 비판했다. “文學部門만 하더라도 十五年間의 總生産量の 八,九割이 都市 특히 明洞과 鐘路, 茶房中心의 浮動的인 非生産的인 生活에만 사로잡혀 온 것이 事實이다.”¹⁾ 그는 당대 문학이 명동과 종로 다방 중심의 비생산적 생활, “化粧品과 함께 日本에서 密輸入해온 「太陽族」的인 生活과 思考와 生態”에 치우쳐 있음을 개탄하면서 우리만의 생활에 기반한 문학이 아님을 비판한다. 여기서 ‘태양족’이란 전후 일본작가 이시하라 신타로의 소설 「태양의 계절」에서 유래한 용어로, 소설 속 주인공이 보여주는 소비적, 퇴폐적, 변태적이라 할 탈윤리적 청년상을 가리킨다.²⁾ 우리나라의 경우

1) 이무영, 「새로운 農民型的의 把握 農民文學은 農民의 生活속에서」, 『동아일보』, 1959.12.17
2) 이시하라 신타로의 「태양의 계절」(1955)은 대학생 다쓰야와 여대생 에이코의 탈선한 연애를 그린다. 주인공 다쓰야는 “이 음탕하고 난잡한 도회지 속에서 연애 따위는 생각도 미치지 못할 일”이라는 의식하에 “육체적인 환락 이외의 것에 도취한 적이 없었”(이시하라 신타로, 『太陽의 季節』, 범우사, 1978, 44면)기에 에이코와의 교제를 의도적으로 저열화하며 “여자, 거래, 싸움, 공갈 등 그들의 악덕이 추구할 수 있는”(46) 온갖 악행으로 관계를 이어간다. 홍윤표에 따르면, 전후 일본에서는 비트족 외에 사양족, 태양족, 미유키족 등 다양한 ‘족’문화가 형성되었다. 태양족은 기존 도덕과 배치되는 자유분방함과 쾌락추구로 전후 일본사회에 화제를 몰

이러한 탈윤리적 청년상, ‘일본에서 밀수입된 태양족적인 생활과 사고’를 집약하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프레, 전후파 또는 명동족이다. 이무영은 “解放後 우리는 許多한 새로운 人間型을 造成했다”며 “貪官汚吏型, 政治뽀로커型, 自由婦人型, 謀利輩型, 戰後派型, 大學生型, 明洞族, 깡패型, 高官型, 太陽族等等, 實로 그數를 헤아릴수 없을만큼 解放前에는 想像치도 못했던 人間型을 造成했다.”고 기술한다. 해방 이후 대중소설이 그려온 도시적 인간형은 탐관오리나 고관, 모리배나 정치뽀로커, 깡패와 같이 정치적 부정성을 띠는 존재들이거나 자유부인, 전후파, 대학생, 태양족, 명동족과 같이 윤리적 부정성을 함의한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그 속에서 명동족은 태양족이나 전후파형, 자유부인형과 겹쳐지는,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문화를 대변하는 주체로 간주된다.

명동족은 명동거리를 채운 다양한 인간군상 중 여성과 청년을 특정하는 표현이다. 1950년대 명동거리에는 ‘명동백작’ 이봉구로 대표되는 중년 남성작가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인이 모여들었으며, 박인환과 피가로드방, 오상순과 청동다방, 전혜린과 음악다방 돌체 등 명동거리 다양한 장소들이 특정한 문학적 감수성을 환기하는 공간으로 떠오른다.³⁾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명동거리는 화려한 백화점과 양장점, 스탠드빠와 카바레가 어우러지는 향락적 공간으로서 무수한 여성과 청년들이 운집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본고는 1950년대 대중문화 속 ‘명동족’ 또는 ‘명동형(인간)’, ‘명동청

고 왔다. 홍윤표, 「전후 일본의 족(族) 문화와 ‘친황’의 부제」, 『아시아문화연구』, 19집,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255-256면 참고

3) 김진하는 1950년대를 ‘다방문화의 르네상스’라 호명하면서 50년대 명동문화의 중심으로 술집 포엠과 동방싸롱, 음악다방 돌체를 거론하고, 오상순과 청동다방, 박인환과 휘가로드방의 인연을 기술했다. 김진하, 「제비의 귀천-문예다방 60년」, 『근대서지』 18호, 근대서지학회, 2018, 72-80면 참고. 김지윤은 ‘다방 문인 네트워크’라는 키워드를 통해 명동 다방을 비공식적 공론장으로 규명하고 있다. 김지윤, 「1950-60년대 재야공간으로서의 다방과 문인 네트워크-문단의 ‘명동시대’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7, 2021 참고. 본고에서는 1950년대 대중문화에서 ‘명동족’으로 호명된 존재들에 집중하고자 하기에 이봉구를 비롯한 명동 문화인의 표상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다.

년, ‘명동숙녀’의 표상을 분석하고, 1950년대 소설 속에서 명동이라는 전후 원조경제 재건사회 공간의 새로운 인간형에 대한 탐색이 가진 의미를 재고하려 한다. 명동족, 명동형, 명동청년 등은 전후과나 아프레와 겹쳐지는, 타락하고 탈선한 모랄의 문제를 부각하는 호명인⁴⁾ 동시에 태양족, 비트족과 같이 서구나 일본 전후 세대의 가치관 유입, 명동이라는 재건 자본주의 사회 공간의 특수성이 교차하는 가운데 생성, 유통, 소비되는 용어이다. 본고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 대중문화에서 문제시되는 공간인 명동과 명동족, 명동형의 호명과 재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후 근대 사회, 새로운 가치와 윤리에의 탐색이 가진 의미를 세대와 젠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전후 자본주의 현실 속 명동의 장소성과 명동족

조선시대 남촌 명례방(明禮坊)이었던 명동은 일제강점기 메이지마치(明治町)로 불리며 혼마치(本町)와 함께 식민지 근대를 상징하는 장소이자 금융과 소비의 경제중심지로 부상한다. 해방 후 명동은 시공간을 중심

4) 전후를 의미하는 불어 아프레게르(Apres-guerre)에서 파생된 아프레, 아프레걸은 전후파와 겹쳐진다. 아프레게르는 전후 사회에서 구질서에 반항하고 방황하는 젊은 세대를 의미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후과나 아프레는 전쟁의 상흔과 사회적 아노미 가운데 탈선적이고 퇴폐적인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된다. ‘아프레걸’에는 사치와 허영, 창부성, 양풍, 이기주의 등 부정적 기호가 덧붙여진다. 아프레걸의 개념과 의미망에 대해서는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 와 ‘아프레걸’ 표상의 의미-여성잡지 「여성계», 「여원», 「주부생활」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연구』, 16호, 한국여성문화학회, 2006 참고. 당대 ‘아프레걸’로 호명된 존재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아서, 양공주는 물론 자유부인, 계부인, 여대생, 미망인 등 다양한 여성을 포괄했으며, 전후 파, 현대여성, 맘보걸, 마담족 등의 명칭과 함께 사용되기도 했다.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걸, 『대중서사연구』, 18호, 대중서사학회, 2007 참고. 한편, 권보드레는 전쟁경험과 단절되어 있으며 가정과 국가 내부에 위치한 자유부인과 대조해, 전쟁의 상흔과 결부된 아프레걸을 태생부터 가정과 국가 외부에 위치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권보드레,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출판부, 2009, 84-85면 참고.

으로 문화예술인이 모이는 다방과 주점, 양장점과 백화점, 카바레와 스탠드바가 즐비한 문화와 소비 향락의 공간으로 변화해간다.⁵⁾ 한국전쟁 중 미군 피엑스에서 제반 물자가 명동 달리 골목으로 퍼지면서 전후 명동 1가와 2가는 양품점, 양장점과 백화점 등 유행을 주도하는 상점이 밀집한 소비중심지로 부상한다.

박완서는 1950년대를 회상하는 글에서 “폐허가 널려 있는 서울에서 오히려 한복사치는 그 어느때보다도 극성맞았던 것으로 기억⁶⁾하며 홍콩이나 일본에서 수입된 “비로도 치마에 양단 저고리면 최고의 사치요 정장이었다”고 술회한다. 명동은 사치스러운 밀수품 의복지와 최신 유행을 다룬 잡지들로 구현된 전위적 스타일 전시장으로 기능했다.⁷⁾ 최고, 최신의 유행이 구현되고 변화한 소비문화의 향락이 펼쳐지는 명동은 당대 대중매체가 즐겨 다루는 파노라마의 무대이기도 했다. 가령, 『동아일보』 기사 「서울의 축소판, 명동의 하루」는 향락의 자본이 모여 있는 서울, 그 축소판으로서 명동을 하루의 시간에 따라 소묘하며 “서민의 생활고는 아랑곳없이 유행, 향락만 난무”하는 공간으로 집약한다. 명동은 ‘파리의 변화가 상제리제 거리, 뉴욕의 5번가, 동경의 긴좌’와 대비되며 “서울에서 으뜸가는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변화로운지대”로 “「명동의 하루」는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온갖 사치와 유행과 오락과 술과 여자로 그칠사이없는 소란속에 그래도 한국최고의 호사로운 풍경을 이루고 있다.”⁸⁾

5) 민도경, 「1950년대 명동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이봉구의 수필 「명동백작」을 기초로 하여」, 동국대 석사, 2008 참고.

6) 박완서, 「1950년대·미제문화와 '비로도'가 판치던 거리」, 『역사비평』, 15호, 역사문제연구소, 1991, 109면

7) 1950년대 발행된 『여원』 등 여성지는 서구문화를 소개하면서 소비문화 담론을 형성했으며 명동을 배경으로 이는 구체화되었다. 김미선, 『명동 아가씨 : 근현대 여성 공간의 탄생』, 마음산책, 2012, 33면

8) 「서울의 縮小版 明洞의 하루」, 『동아일보』, 1957.11.25

밀려오고 밀려가는 인파..... 인파..... 「明洞족속」이라불리우는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겉보기에 —목요연하다 「최신」 「최고」..... 무엇이든 이두가지요건이구비된것만을 몸에붙이고또 가까이한다는것이이들의 「신조」(信條)인데 여하간에 한국의 「유행」은 서울에서퍼지고 서울의 「유행」은 「明洞」에서 시작된다

「모던」 여성의복장 「스타일」을좌우한 「A라인」 「H라인」 「후레야」 「타이트」 「헤프번 스타일」 「복스 타인」 「몸보(맘보) 스타일」..... (모)든 가지가지유행이 「파리」에서 「뉴욕」에서東京에서 뒤늦게(?)수입되어항상 그 「쌈풀」을보여주는것이 「明洞」 거리..... 또 「쌈풀」 노릇을한다는것이 「明洞 뽀이」나 「깎」들의자랑-

오후五시는 「明洞」의 여주인공(?)들 「빠」의접대부 「뎨서」 등의 출근 시간이기도한데..... 요즈음 반 「코-트」 윗도리밑에 좁다란 「맘보」 바지를입은이들 「모던」 아가씨들엔흔히 「여배우」 「뎨서」 등이많은나 물론 새 파란 여자대학생들도 한몫

오전 다섯 시부터 다방이 문을 여는 오전 10시, 소란이 시작되는 오후 1시, 인파로 극을 이루는 오후 5시, “「스탠드 빠」의시간” 오후 10시를 지나 밤 깊은 오후 12시로 마무리되는 「명동의 하루」는 명동거리를 메운 사람들의 축도를 선정적인 시선으로 형상화한다. 명동은 “五십개이상의 「다방」 三십여개의 「빠」”, “양품점, 양복점, 양장점은 도합五0개소가넘으며” 그곳에서 “모두가 「최신」의침단을걸는것으로차쳐”하는 ‘명동보이, 명동걸’들이 최고, 최신의 유행과 상품을 소비하고 전시하는, 서로를 구경하고 구경시키는 공간으로 현현한다. 다시 말해 1950년대 명동은 도시문화의 구경거리가 넘쳐나고 이를 구경하는 군중, 화려한 도시의 일상을 탐욕스럽게 소비하는 구경꾼이 모여드는 공간이다.9) 그들은 서로에게 파리와

9) 바네사 슈바르츠는 대도시의 군중을 시각적 자극에 몰입하는 구경꾼으로 호명한다. 구경거리의 수용자로서 새로운 군중의 출현, 도시생활의 구경거리화와 대중문화의 출현은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구경꾼 속 개인들은 일상생활의 구경거리를 탐욕스럽게 소비하며, 일상은 선

뉴욕, 동경에서 (뒤늦게) 수입된 맘보스타일, 박스타입, 헵번스타일의 ‘샘플’ 노트를 하며, 서로를 구경하고 서로에게 구경거리가 됨으로써 파리지앵이나 뉴요커처럼 ‘명동족’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얻는다. 다시 말해 명동거리의 군중들은 일상이 구경거리로 전시되는 광경을 즐기며 대중매체는 명동거리에서 먹고 입고 걷는 일상을 구경거리로 만듦으로써 ‘파리지앵’이나 ‘뉴요커’와 같이 ‘명동족’이라는 공동 정체성을 환기시킨다. 명동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운집하는 군중의 유동성은 시각적 즐거움을 좇는 도시인의 미감, 구경꾼의 탄생과 결부된다.

1950년대 대중문화에서 명동은 소비와 향락의 퇴폐적인 공간이자 문화예술인의 낭만이 교차되는 공간이다. 폐허에서 재건되어 가는 명동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밀집시켰으며 부랑아부터 재건사업 브로커, 문화예술인과 대학생, 노점상과 고위관료에 이르기까지 계층, 성별, 세대를 망라한 인간들이 명동의 거리와 다방, 바와 양장점을 오갔다. 명동거리에서 사람들은 최신유행의 스타일과 매너, 새로운 풍속과 취미를 전시하고 그들 사이에 생겨나는 흥미로운 사건과 스캔들을 소비하며, 진한 화장과 육체를 과시하는 여성들과, 가난을 구경시키는 걸인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들을 탐욕스럽게 구경했다. 계층과 세대의 전시장으로서 명동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같이 통금이 해제되는 날에는 온갖 사건이 벌어지는 흥미로운 무대가 되었다.¹⁰⁾

「서울의 축소판, 명동의 하루」에서 “「明洞」의 여주인공(?)들 「빠」의 집대부 「뎨서」라 언급하듯 1950년대 대중문화가 주목한 구경거리로서 명동의 주인공은 여성과 청년이다. 명동족으로 분류되는 존재는 여성(마담

정적인 구경거리로 변형된다. 바네사 슈바르츠, 노명우박성일 역, 『구경꾼의 탄생』, 마티, 2006, 37-64면 참고

10)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은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거리의 인파를 ‘광란’의 구경거리로 포착한다. “고요한밤, 거룩한밤.....”이되어야할 이날 「크리스마스 이브」가예년과다름없이 한날 「광란(狂亂)의밤」이되고말았다” 「狂亂의 『이브』-서울의 이모저모」, 『동아일보』, 1956.12.26

족)이며 청년(남녀대학생)으로, 명동족(속)은 명동청년, 명동보이, 명동걸, 명동숙녀, 명동마담의 호명을 포함하는 것이다.¹¹⁾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패션과 스타일이 주는 미적 환상의 소비, 유희적이지만 덧없는 패션의 논리를 체화한 존재로서¹²⁾ 그들은 1950년대 원조경제에 기반한 재건 자본주의 사회의 허황한 화려함, 내실 없는 외화, 일상을 벗어난 향락을 대변하는 존재로 부각된다. 여성들은 명동 양장점에서 색 드레스(자루치마)와 맘보바지의 최신 패션을 소비하고 명동 미용실에서 오드리 햅번의 커트 머리를 즐기며, 청년들은 명동의 댄스홀, 음악다방을 전전하면서 청춘과 유희를 즐긴다.

유희적이지만 덧없는 패션의 논리를 체화한 존재로서 명동족, 명동청년, 명동형의 호명은 청년의 향락과 여성의 소비로 집약되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띤다. 명동족으로 호명되는 마담이나 대학생은 아프레걸의 탈선이나 무지, 사치소비의 매국, 반민족 이미지와 결합되곤 한다.¹³⁾ 가령, 선

11) 명동의 다방과 주점을 오가는 중장년 남성 문필가와 예술가들은 자칭, 타칭 '문화인'으로 호명되며 '명동족'으로 호명되는 여성, 청년 집단과 구분된다. 이봉구는 『그리운 이름 따라-명동 20년』(유신문화사, 1966), 강정구 편, 지식올만드는지식, 2014과 『明洞-바람따라 歲月따라』, 삼중당, 1967를 통해 해방기로부터 1950년대 명동의 문화인을 명동거리의 다른 존재들과 구분지어 서사화한다.

12) 질 리포베츠키는 과거의 정체성이 계급이나 신분에 의해 고정된 것이라면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패션과 스타일에 의해 유희하는 것으로, 유희적이지만 덧없는 패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의 출현을 문제시한다. 외양은 패션의 체계가 구현되는 대표적인 영역이며, 온갖 상품들이 일시적인 유행의 사소한 변화 속에서 미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소비된다. 질 리포베츠키, 이득재 역, 『패션의 제국』, 문예출판사, 1999, 23-35면 참고

13) 일제강점기 이래 우리나라에서 사치소비는 일상의 정치화 도구로서 통제와 부정담론에 따라 도덕적 결합이나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졌다. 사치는 비정상의 범주에서 반민족, 매국, 여성의 방탕함 등 부정적 자질과 연관되어 차별적 시선을 작동시킨다. 권미경, 「차이와 차별 : 한국 근현대 사치 소비의 문화사」, 이화여대 박사, 2017 참고. 1950년대 소비문화의 특징은 여성들이 서구상품의 소비자가 되는 순간 성적 대상화하며 아프레걸, 자유부인 등의 호명을 붙인다는 데 있다. 안서영, 「아프레걸의 패션 소비를 통해서 본 1950년대 한국 소비문화」, 연세대 석사, 2011, 66-67면 참고

거운동 광경을 전하는 기사에서는 정치에는 관심 두지 않은 채 후보자의 외모나 기웃거리고 자신의 양장스타일을 전시하는 ‘육체과 여성들’의 경박함을 포착한다. “빨간 『하이힐』에 『록색』 감정색 『투피스』... 튀져나온 앞가슴도 자랑할겸 봄의 明洞에들어선 『육체과』 여성들 - 때마침 『합동정견발표회』(시공관)에 모여든 수많은 시민을 보자 『이게 웬 걸레들이야』는 듯”¹⁴⁾ 화려한 녹색 감정색 투피스에 빨간 하이힐을 신고 명동거리를 걷는 여성들은 현실에 무지한 존재로 치부된다. 마찬가지로 명동거리의 대학생은 부패와 협잡을 배우는 허랑한 존재로 매도된다. “「카메라」나 메고 「판스홀」을 찾으며 學校는 散步삼아나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어떤 無知覺한 女學生은 洋婦人불체지르게 肉體美를 자랑하며 거리를 進歩하는데는 놀라지않을수업읍니다”¹⁵⁾ 명동은 서양풍에 젖은 사치를 학습하는 공간 (“明洞거리에서 洋風에 젖은 奢侈를배우고”)이며, 여학생의 양장 스타일은 양공주와 동일시되며 내면의 천박성과 타락을 암시한다.

명동거리가 은행가와 브로커, 문화인과 학생, 부랑아와 깡패가 공존하는 공간이듯 명동족 또한 화려한 스타일의 외양 속에 신사와 부랑자, 대학생과 깡패, 숙녀와 양공주 등 이질적인 정체가 공존하는 존재이다. 외적으로 여대생과 마담, 오피스걸과 양공주가 구분되지 않기에 그들의 세련된 스타일은 손쉽게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 가령 험병형 더빙머리 스타일에 대한 기사문에서는 최신 커트머리를 유행의 세련됨으로 간주하기보다 멸시해 마땅한 것으로 조롱하는 태도를 취한다. “블란서 「코티」분냄새를 풍기고 나이론으로 휘감고다니는 流行의앞장을선그들에게도 생각한바있어 「가난한동지들을 향상머리속에 생각하고있다」란 표적으로 파마代도 이발료도 절약하고 一見거지 꼴을하고 다닌답니다 명동거리에 나가 보시면 알일이지만 그러기에 깡통을찬 거리의 천사들은 동지를 만나기나 했다는듯이 더빙머리 여성들을 잘따라다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¹⁶⁾ 시

14) 「선거 街頭中繼 : 아프레女性的 選舉觀」, 『동아일보』 1956.4.18

15) 金榮吉, 「먼저社會를醇化하라 - 學生風紀論難의焦點」, 『조선일보』 1954.11.25

중일관 반어법을 구사하며 더빙머리가 명동거리 거지 아이들과 비슷하니 그 스타일의 이점 역시 거지와 동지적 입장이 가능한 데 있다고 비꼴다. 명동족의 사치와 세련됨이 그들의 정체에 대한 혐오와 등가 교환되는 것이다.

1950년대 대중소설에서 명동은 온갖 계층과 세대, 인연과 욕망의 진열창으로서 주요한 배경을 이룬다. 가령, 중년남성과 여대생의 연애(불륜)를 중심으로 가정낙원론과 현모양처 담론의 모순을 서사화하는 김래성의 『실낙원의 별』에서는 명동 일대를 스쳐가는 주요 인물들의 이합집산을 몽타주로 그리며 갈등을 점화한다. “명동 입구 십자로의 고영림, 진고개 입구 그릴 특별실의 이애리와 고영해. 한국은행 뒷골목 중국집 이층의 강석운, 무교동을 거닐고 있는 유현자, 을지로 이가짚을 달리고 있을 송준오, 관철동 은마담 집 윤마담의 무릎에서 부시시 일어서는 고중국 사장……”¹⁶⁾ 등 “이날밤 아홉시를 전후하여 을지로 네거리를 중심으로”(165) 명동 일대에 모여든 문화예술인, 사장족, 여대생, 사무원 등 온갖 계층을 망라한 인물들은 1950년대 후반 재건 사회의 인간군상을 집약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각자의 윤리를 전시하고 욕망을 표출하며 “각기의 의욕 하나에 따라서 이합”(166)하는 것으로 소설의 핵심 서사인 유부남 강석운과 여대생 고영림의 연애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드러내게 된다. 이처럼 『실낙원의 별』을 비롯해 1950년대 (대중)소설에서 명동은 부랑아부터 사장, 고관에 이르기까지 온갖 계층의 진열창으로서 재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비정을 집약한 장소로 형상화된다. 한무숙은 『빛의 계단』에서 중산층 노인 서병규의 시선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빛과 그림자가 집약된 공간으로 명동거리를 포착한다. 명동거리는 ‘얼이 빠지는’ 사람 행렬과 자동차 소음, 형형색색의 빛으로 채워진 동시에 이면에 그들을 포함한 공간이다.

16) 「경향 짚룽 - 女子들의더빙머리」, 『경향신문』, 1955.5.14

17) 김래성, 『실낙원의 별』, (『경향신문』, 1956-1957) 한국문학전집 24, 민중서관, 1959, 166면

형형색색의 차체가 또 형형색색의 소음을 울리며 눈앞을 헤엄쳐 간다. 서병규씨는 「얼이 빠지는」 것을 실감했다.(중략)

정관에게 쫓기어 비로 쓸려 젖혀진 것처럼 길모퉁이에 몰려 있는 노상들, 저물며부터 나오는 군밤장수, 과일장수, 장난감장수 같은 것은 그래도 당당한 편이고, 대소쿠리를 등에 진 쓰레기꾼들이 최신 모우드의 아가씨들 틈에 끼어 가는 것이다. 진주 밑 으스스한 곳에는 행인에게 손을 내미는 걸인까지 보였다.¹⁸⁾

소설에서 명동은 최신 모드의 아가씨들 사이에 군밤장수, 과일장수, 장난감장수 같은 노점상과 쓰레기꾼이 걸어나고 전신주 밑에서 걸인이 구걸하는, 세대, 성별, 계층이 망라되고 화려함과 비루함, 휘황한 색채와 누추한 어둠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이 거리의 모든 것은 흥미로운 구경거리이지만 구경꾼의 시선이 ‘얼이 빠지는’ 복잡함과 현란함 가운데 으스스한 곳에 감추어진 노점상과 걸인의 존재를 포착하게 될 때, 그 공간의 휘황찬란한 화려함이란 인간을 소외시키는 풍경으로 자리할 따름이다. 이처럼 「빛의 계단」에서 서병규의 눈을 통해 최신 모드의 아가씨를 빛의 거리에 속한 것으로, 걸인이나 쓰레기꾼을 휘황함에 가려진 어둠으로 포착하는 것과 달리, 장덕조의 『격랑』에서 (최신 모드의) 아가씨와 걸인(부랑아)은 서로에게 혐오스러운 구경거리로서 동일시된다. 『격랑』에서 화려한 크리스마스이브 휘황한 전등빛을 즐기며 거리를 거니는 은행가 김욱과 명동족 여성 최금희는 거지아이에게 구걸의 대상이자 위협의 대상이다. 최신 모드의 명동족 최금희는 타이피스트이기보다 밀매음녀로 간주되며, 거리의 부랑아와 마찬가지로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환기된다. 소설은 거지의 구걸도, 명동족의 패션도, 거지아이에 대한 여대생의 돌봄까지도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명동거리의 비정함을 포착하며(“어느덧 구경꾼이 겹겹이 주위에 모여 있었으나 한 사람도 은주를 도와주려고 하지는

18) 한무숙, 「빛의 계단」, 『한국대표문학전집』 8, 삼중당, 1972, 442-443면

않는 것이다.¹⁹⁾ 순수한 인간애, 휴머니즘에 기반해 비정한 사회 현실을 개선해 나가려는 주인공 한은주의 윤리성을 부각한다.

다양한 소설에서 사치스러운 명동족의 외양이 타락, 탈선과 겹쳐지는 것에는 1950년대 전후 자본주의 사회의 열악한 현실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태가 가로놓인다. 열악한 현실과 동떨어진 듯 과리와 홍콩을 능가할 사치로 번창하는 명동(“巴里를 뺨칠 明洞이 繁昌하고 香港이 무색할만큼 百貨店이 분비고있다.”²⁰⁾)은 명동족의 화려한 외양으로 집약되며 명동족에 대한 혐오는 양풍, 밀수, 탈선, 간통, 사기, 협잡 등 온갖 부정적인 세태를 투영한다. 이무영이 1958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설 『계절의 풍속도』에는 세련된 교양과 매너를 갖춘 채 명동을 오가며 미망인 송자옥과 우경희, 여대생 윤주옥과 한애련, 타이피스트 채선 등 마담과 여급, 여대생을 가리지 않고 농락하는 ‘명동보이’의 모습이 나타난다.

“아니 언제부터 우리 전후파씨가 학자들한테까지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던고?(중략)

체격도 전나무처럼 쭉 뻗은 이목이 단정한 귀공자타입이다. 대학 상과를 나운터라 지켜야 할 자리에 가면 신사로서의 체면도 지킬만한 교양도 몸에 지니고는 있었고 (중략) 문학, 음악, 미술에도 심심치않을 정도의 상식은 갖고 있는가면 마작, 당구, 춤 어디나 사교를 하기에 족한 세너스도 있어 어디로 뜯어 보나 만만해 보이는 구석이라고는 없건만²¹⁾

대학 상과 출신의 지식과 예절, 사교, 취미의 센스를 가진 ‘귀공자타입’의 청년 신사 박현수는 ‘전후파 씨’와 ‘명동보이’의 호명이 교차하는 존재이다. 신사의 체면과 스타일을 교양처럼 몸에 두르고 있으나 실상 발렌티

19) 장덕조, 『激浪』(『경향신문』, 1957.12.1-1958.5.31), 신태양사, 1959, 85면

20) 「現實：奢侈의 展示」, 『동아일보』 1961.3.20

21) 이무영, 「季節의 風俗圖」, 『동아일보』, 1958.12.2

노를 닮은 그의 육체와 정신은 ‘진후파 씨’의 탈선으로 집약된다. “박현수는 철두철미 그의 말을 빈다면 「현대인」이요 「지성인」이었다. 인간은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었다.”²²⁾ 소설은 1955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기꾼 박인수를 모델로 명동청년의 세련된 매너나 스타일에 감추어진 윤리적 타락을 강조하는 한편, 박현수와 대조해 건설한 대학원생 안상훈을 등장시켜 새로운 세대의 윤리를 문제시한다.

그런데 소설에서 박현수와 안상훈은 스탠드 빠나 다방 등 명동거리 곳곳에서 수시로 부딪힌다. “애련이와 다방에서 나오다가 만난 사나이를 상훈은 그후 어떤 스탠드 빠에서도 한번 만났던 것이다. 그쪽은 넷이었다. 모두가 미끈하니 차린 속칭 명동 뽀이들이었었다.”²³⁾ 미끈한 차림새로 여성을 유혹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명동보이 박현수와, 부정한 사회현실에 우울해하며 연구에 매진하는 대학원생 안상훈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 그들이 모두 명동거리 다방과 스탠드빠를 출입하는 청년이라는 점은 외양뿐 아니라 지식과 교양, 기성의 윤리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 등에서 그들을 구분 짓는 것이 무의미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시 말해 사기 협잡을 저지르는 탈선한 명동보이 박현수나, 강직하고 성실한 대학원생 안상훈이 모두 기성의 가치나 윤리에 저항하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모색하는 ‘현대인’이요 ‘지성인’으로서 동일시되는 것이다. 이는 한애련을 사이에 두고 그들이 삼각관계를 구성하며, 박현수의 아이를 출산한 애련이 안상훈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박현수를 긍정하는 결말을 통해 잘 드러난다.

애련은 반발심이작용 했던것을 어렴풋이 기억 하고 있는것이였다. 낡은 도덕에 대한 반발심이었다.²⁴⁾

22) 이무영, 「季節의 風俗圖」, 『동아일보』, 1958.12.5

23) 이무영, 「季節의 風俗圖」, 『동아일보』, 1959.2.20

24) 이무영, 「季節의 風俗圖」, 『동아일보』, 1959.1.5

위선만이 정당시 되어야하는 것이 현대인의지성이구 도덕일까? (중략)
세상 사람은 날 욕할꺼야. 처녀가 아이를 낳았대구!교양이 있다는 사람은
아프레니 전후파니 할꺼구 막 말하는 사람들은 화냥년이라구 침을 뱉을
꺼야. (중략) 어떤점으로 본다면 박현수가 이 사회 보다는 솔직한인간일
지두 모르지.²⁵⁾

소설은 미혼모 한애련의 목소리를 빌어 기성세대의 윤리와 사회의 위
선을 비판한다. 정신적 사랑을 강조하며 육체를 억압하는 ‘낡은 도덕’을
거짓과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러한 위선이야말로 ‘현대인의 지성이구
도덕’이 비판해야 마땅함을 주장한다. 감정에 충실했고 그 결과를 책임지
는 자신에게 기성사회가 아프레니 전후파니 화냥년이라는 욕을 한다고
해도 현대인이자 지성인으로서 그녀는 당당히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다. 그 속에서 명동보이 박현수는 위선을 거부하고 감정에 솔직했다는 점
에서 기성사회보다 올바르다고 평가된다. 「계절의 풍속도」는 명동족의
행위 가치가 세련된 패션이나 사치스런 소비의 외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
라 기성 사회질서에 대한 저항과 항변에 있음을 환기한다.

‘기성예의 반란’으로 집약되는 195-1960년대 초 청년문화는 명동족, 명
동형의 호명에서 ‘비트족’ ‘비트걸’의 호명으로 이어진다.²⁶⁾ 10대의 자살도
비트닉한 문화로(“뫼팅인가 그들만이 느끼는 사회와의 괴리(乖離)와 열등감
에 「비트」 족적인 자학(自虐)등이 겹쳤을지모른다”²⁷⁾), 청년들의 산책이
나 레이싱도(“요즘 우리의거리에도 「스랙스 스타일」의 「비트 걸」(?)들이
매달리고있는장면도가끔 볼수있다.”²⁸⁾) 비트닉한 것으로 그려진다. 비트

25) 이무영, 「季節의 風俗圖」, 『동아일보』, 1959.4.16

26) 비트족 문화는 제1, 2차 세계대전의 경험과 이후 냉전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비트족은 서양
의 합리적 문명에 반발하여 대항문화를 추종하며, 정치적으로는 반체제적 진보성을 지니면
서 문화적으로는 쾌락주의를 추종하는 복합적 성격을 띤다. 이동연, 『문화부족의 사회』, 책
세상, 2005, 97-109면 참고

27) 「세女高生の 連鎖陰毒」, 『조선일보』, 1962.2.13

족은 현대 산업사회를 부정하고 기성도덕을 거부하며 광란의 재즈 음악을 선호한 195-60년대 미국의 방랑자적인 젊은 세대를 이르는 말로²⁹⁾ 우리나라에서 ‘비트족’이란 용어는 1961년 영국영화 「비트걸」의 개봉을 둘러싼 소동 가운데 부각된다.³⁰⁾ 비트족이란 ‘재즈’와 담배연기에 과묵히 “價値觀念과 生活의中心을喪失”하고 “오늘 하루를 자유분방하게” 보내는 존재로, “規格化되고 관에박힌듯한 日常生活에 感厭과 滿足을 느끼면서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人間本然의 態度로 돌아가 自由를 누리며 살지는”³¹⁾ 태도로 집약되는 존재이다. 일상의 질서나 규율, 금기에 대한 일탈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명동청년의 분방한 일탈은 비트족의 내면과 상통한다. 이처럼 명동족, 명동형 인간은 아프레, 전후 과정에서 태양족, 비트족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면모를 나타내며, 50년대 명동거리의 최첨단 유행과 소비문화를 즐기고 기성윤리에 도전하며 새로운 질서를 탐색하는 존재로서 다양한 대중소설에서 특징적인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28) 「스쿠너」, 『동아일보』, 1962.9.24

29) 미국 중산층의 물질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잭 케루악의 거부감에서 ‘비트’는 모든 관습을 거부하는 새로운 인식의 표현이었다. 이만식, 「작품 해설」, 잭 케루악, 『길 위에서 2』, 민음사, 2009, 337면

30) “英國의 젊은世代들의 生態를 그린 映畫는所謂 「비트」族의 生活形態를 지나치게 羅列적으로 描寫해서 靑少年으로 하여금 模倣케할 憂慮가 많다는 것이 理由가되어 上映保留를 希望한것인데”(「上映保留希望第一號」, 『경향신문』, 1961.1.31) 영륜의 상영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이 영화를 수입한 세기영화사에서는 “우리는 自進해서 몇場面을 「컷트」까지했다”며 보류 결정에 반발하고 이후 문교부의 허가를 통해 상영이 이루어지지만 치안국의 상영금지 통보 예정이 내려진다.

31) 「「비트 제너레이션」의 生態 - 「제스」와담배연기에 과묵히」, 『경향신문』, 1961.2.4

3. 명동 청년의 불량성과 현대성

1950년대 대중문화에서 명동족, 명동청년, 명동숙녀의 호명은 세련된 패션과 매너를 외양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성의 윤리나 규율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함의한다. 이때 현대적인 감각이란 특히 사회적인 의무나 규율 질서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지속적인 관계나 책임 등 소유의 논리와 구분되는, 화폐 교환 논리가 투영된 자유로운 관계성의 추구하고 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1950년대 신문연재 대중소설에서 명동족, 명동형, 명동청년은 세련된 교양과 능란한 화술, 뉴요커, 파리지앵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존재로 발견되며, 그 외양과 태도가 가진 명랑성-현대성과 불량성-도피성 사이에서 유동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한무숙은 『빛의 계단』에서 중산층 노인 서병규와 세대, 젠더, 계층적으로 이질적인 존재로서 댄스홀의 여급이자 명동걸 ‘미스 윤’을 배치한다.³³⁾

32) 게오르그 짐멜은 모더니티의 특성(현대성)을 화폐경제의 본거지로서 대도시적 삶의 방식과 태도에서 찾는다. 대도시에서는 화폐경제의 교환성이 담지하는 객관성과 자유가 보편화하고 그것이 모더니티의 본질로서 삶의 행동으로 축적된다. 이전 사회에서 토지의 소유가 개인의 인격과 연결되었던 인격-소유 상호의존성이 화폐경제 체제에서 해체되며 현대인은 돈을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구속과 의무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담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화폐경제의 객관성과 비인격성이 대도시 안에 침투하면서 대도시인은 특유의 냉담함과 둔감함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현대성의 본질을 구성한다. 이에 대해서는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6 참고

33) 김윤경은 「빛의 계단」에 대해 전후 기준의 윤리의식이 깨뜨려진 자리에 아프레한 세대와 배금주의가 넘쳐나는 세상 속 새 윤리를 세우는 주체를 설정하고 미래 사회윤리와 질서를 기획하는 소설이라고 평가한다. 서울 중산층 서병규 일가를 통해 구원과 회상의 공간으로 가정을 설정하고 이에 대조되는 공간으로 소공동과 명동 일대 풍경을 제시해 배금주의가 넘쳐나는 세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김윤경, 「1950년대 근대가족 담론의 소설적 재현양상- 한무숙의 『빛의 계단』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62호, 한국비평문학회, 2016 참고. 또한 조미숙은 「빛의 계단」에서 명동과 소공동 일대가 서울의 급변을 표상하며 비정하고 인간이 소외되는 장소로 그려졌음을 지적한다. 조미숙, 「『빛의 계단』에 나타난 1950년대 서울의 장소성」, 『통일인문학』, 79호,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240-244면 참고

벽에는 극장 포스터가 걸려 있다. 살뽀한 눈을 감고 생긋 웃는 젊은 여인의 매혹적인 얼굴이 그려진 것이다. 입술이 도톰해 육감적이다. 머리 모양하며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문득 좀 전의 여인의 얼굴이 머리에 떠올랐다. 꼭 같은 머리모양이다. 같은 형의 눈썹, 제 입술보다 좀 빠져 나오게 그린 입술연지, 눈등에 칠한 푸른 빛 아이샤도우, 다만 포스터의 여자같이 아름답지 못한 것만이 다르다. 그러니깐 서병규씨의 눈으로 볼 때 고약한 점만 고스란히 흉내낸 것이 그 여인인 것이다.³⁴⁾

명동은 노인 서병규에게 이질적인 청년의 공간,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과의 거리는 불과 한 미터가 못되지만 그 사람과 서병규라는 진갑노인 사이에는 몇 십년이라는 시간이 단애를 이루고 있는”(444) 공간으로 인식된다. 세대와 가치의 변화를 압축한 공간 명동에서, 구세대의 윤리와 가치를 대변하는 중산층 노인 서병규와 대조되는 존재로서 미스윤과 토니 등 명동보이와 명동걸은 화려한 취향과 강한 개성을 드러내는 탈윤리적 존재로 발견된다. “난한 색깔의 아로하, 다리에 찰싹 붙은 좁은 바지, 살쩍 머리를 컷문까지 내려 오게 기른 「명동 보이」들”(432)은 서로를 영어 이름으로 불러대며 주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로큰롤을 추어대는 무서운 존재로서, 육십대의 서병규나 오십대의 박전무, 사십대 임형인 등에게 서구화된 외양과 태도의 천박함과 몰상식, 불량성으로 환기된다. 외국 영화배우를 흉내낸 패션과 화장, 머리스타일과 동작을 몸에 붙인 채 그들은 사납게 눈을 까블리며 짝다리를 짚고 록큰롤에 몸을 맡기며, 육감적인 입술과 험번형의 머리모양, 난한 화장과 패션으로 명동거리를 제 것인 양 휘몰아 다닌다. 명동걸 미스윤은 임형인과 호텔 샐리아르의 객실에서 동거 생활을 하면서도 명동보이들과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떠돌고 흥청대는, 윤리도 교양도 염치도 순정도 없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불타는 민족혼으로 투쟁을 이끌었으나 해방기 양공주가 된 애인의 변심

34) 한무숙, 「빛의 계단」, 『한국대표문학전집』 8, 삼중당, 1972, 446면

에서 받은 충격으로 모든 인간성과 윤리를 팽개치고 투기와 타락으로 점철된 냉혹한 생을 영위하는 주인공 임형인에게 미스 윤은 타락하고 방향을 잃은 자신의 현재, 추악한 현재를 환기하는 존재로 자리한다. “이건 나의 「세헤라자데」입니다. 못나고 말할 줄 모르고 참새만한 뇌수도 갖고 있지 않은 현대의 세헤라자데입니다.”(433) 그녀는 기성세대의 가치와 단절하고 나아가 인간다움과 여성다움, 사회인다움의 온갖 규율과도 동떨어진 존재로, 어떤 점에서 그 추악성을 통해 전후 사회에서 인간다움이나 윤리를 추구하는 일의 무가치함, 부패한 세태 속에서 정당성이나 예의에 집착하는 일의 무의미함을 대변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중년 남성 임형인에게 그녀는 타락한 현대의 세헤라자데, 매일밤 삶이 아니라 죽음을 이어가게 하는 세헤라자데가 된다.

소설에서 여주인공 경전은 임형인의 애정을 사이에 두고 미스윤과 갈등하는 위치에 놓이며 때문에 명동족 여성의 화려함과 대조되는 무개성의 존재로 집약된다. “무 개성의 개성이랄까, 경전의 성격에는 물처럼 윤곽이라는 게 없다.”(426) 경전은 미스윤의 화려한 취향, 자극적이고 서구적인 스타일과 대조되는, 개성이 강하지 않고 윤곽이 없는 전통적 미감을 압축한 존재로서 임형인에 대한 사랑이나 욕망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의 윤리에 강박된 채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다. 임형인과 경전의 비극이 기성 사회의 규율과 윤리에 대한 강박, 그에서 벗어지는 갈등과 결부된 것이라면, 이러한 기성 질서나 윤리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자신만의 개성과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위치가 긍정적으로 부각된다.

등산 차림이다. 까만 스타스에, 화이스너를 잠그지 않아 산호색 안이 곱게 드러나 보이는 흑백 체크의 잠바가 발랄해 보였다. (중략) 아무리 사치스러운 옷일지라도 그녀가 걸치면 그저 수수한 것으로 되어버리는 듯 어떤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라도 그녀의 그 거실거실한 음성은 그만 평범한 것으로 헤쳐버리는 것이다.(416-417)

『빛의 계단』에서 대학생 정원은 화려함조차 소박함으로, 사치스러움조차 건실함으로 바꾸는 강한 개성의 소유자로 포착된다. 발랄하고 세련된 20대 여성 정원은 명동족 미스윤의 동급생으로 사치스런 양장을 자신의 스타일로 구사하며 주변인과 어울려 덕수궁 구경을 다니고 돌체에서 음악감상을 즐기고 차를 마시며 레코드를 사들이는 진취적인 존재이다. 고루한 윤리에 사로잡혀 명동족을 백안시하는 아버지 서병규와 달리 세대의 공감 가운데 그녀는 미스윤과 경전을 모두 이해하며 어떤 극단적 갈등 앞에서도 낙관성과 적극성을 잃지 않는다. 1950년대 사회에서 여대생이 보여주는 명랑성과 진취성은 암전하고 소극적인 전통적 여성상과 대조되는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³⁵⁾ 서병규가 혐오하는 미스윤이 또한 정원의 동급생으로 여대생과 구분되지 않는 존재라는 점을 돌아볼 때, 정원의 현대성과 명랑성은 미스윤의 일견 불량해 보이는 면모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여지를 암시한다. 해방기 중산층 가정에서 “비단치마루코를 풀던 아이”(455) 미스윤은 대학을 중퇴하고 명동 댄스홀의 여급으로 전락하지만 동시에 여대생 정원과 마찬가지로 젊음이 약동하는 개성을 발현하며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새로운 세대의 면모를 보인다. 새로운 세대로서 그녀의 행동은 예법, 청결이나 위생, 기성의 윤리나 일상의 규율 질서에 대한 방기이자 탈주이며 자신의 본능과 감정에 충실한 것이 된다.

서구적이고 화려하며 향락적 탈선적이지만 다른 한편 일상의 규율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충실한 존재로 그려지는 『빛의 계단』 속 토니와 미스윤처럼, 김내성은 『애인』에서 명동족 청년(여대생)을 불량성과 현대성이 교차하는 존재로 포착하고 있다.³⁶⁾ 소설에서 자유분방한 여대

35) 양주동은 명동 거리를 활기차게 걸어가는 여대생의 모습에서 새로운 시대의 행진, 현대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대의 청년은 암전함이 아니라 씩씩함과 능률을 갖추어야 한다고 진술한다. “그런 암전—邊倒만의 아릿다운 ‘색시’가 現代엔 그리소용이없어요 (중략) 나는 그걸보고 오래간만에 “새 時代의行進”을본것같았어요그런씩씩한젊은여성들이참으로 오는世代의 머느릿감이다 생각했어요” 『秋夜放談』, 『경향신문』, 1958.11.1.

36) 김현주는 『애인』 속 이석란 등 명동형 인물을 경제적 풍요와 지적 습득 과정을 거친 현대어

생 이석란은 “의욕이 다소 많고 적극적이나 쾌활하고 명랑한 성품, 가끔 가다 익살도 잘 부리지만 뿌리 깊은 악의 같은 것은 없어 보이고 지식이 나 교양의 깊이는 없으며 현대적인 센스같은 것은 웬만큼 갖추고 있는, 소위 대표적인 명동형(明洞型)³⁷⁾여성으로, 그녀의 가치관을 집약하는 것은 일부일처의 결혼제도도 교환의 논리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란의 결혼은 석란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한국 여성으로서의 자유의 일부분을 포기하고 그보다, 범위가 좁은 한 사람의 한국의 아내로서의 자유속에서 만족하겠다는 약속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³⁸⁾라는 남편 임지운의 가부장적 윤리에 맞서 그녀는 현대적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강조하며, 50년대 사회에서 남편이 자신의 자유를 강변한다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유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명동형이라면 일종의 불량형이 아니냐?』

『어머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도 생각되지만요. 그러나 그건 오늘날, 도회지에서 자란 젊은 세대의 대부분이 무슨 조건처럼 갖추고 있는 일종의 명랑성일 따름이니까요.』(중략)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오늘날처럼 심각한 시대가 없을텐데 아무리 젊은 세대라고는 해도 그리 쉽사리들 명랑해질 수가 있을까?』(중략)

『그것은 일종의 비겁한 현실 도피니까.』(『애인』 上, 43-44)

중산층 노인 임교수 등 기성세대는 명동형 청년의 명랑함이란 실상 불량성이며 그들의 현대성이란 현실도피의 비겁함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청년 세대는 명동형의 화려함과 활발함, 적극적인 명랑성이란 불량성이 아니라 현명함이라고 이야기한다. 열악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도피의 비겁

성으로 지적하며 이를 비평계에서는 아프레겔로 지칭한다고 본다. 김현주, 「김내성 후기소설 <애인>에 나타난 욕망과 윤리」, 『대중서사연구』, 21호, 대중서사학회, 2009, 215면.

37) 김래성, 『애인』(上), 삼중당, 1956, 43면

38) 김래성, 『애인』(下), 삼중당, 1956, 58면

함이 아니라 초월의 현명함을 보여주는 존재로, 다시 말해 명동형 청년의 명랑함이란 현실로부터의 거리두기, 기성사회에 대한 일탈로부터 빚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동청년의 소비적이고 유행을 쫓는 태도는 불량한 것이며 현실도피적이고 타락한 것으로 환기되곤 하지만 그것이 또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강조하며 가부장적, 봉건적 윤리에 대한 항변을 통해 현대적인 가치와 태도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김내성의 『실낙원의 별』은 중년 작가 강석운과 여대생 고영림의 불륜을 그리는 가운데 고영림의 오빠 고영해와 친구 이애리의 애욕 교환 서사를 제시하면서 명동족 청년의 불량성과 현대성의 근저에 가로놓인 교환의 논리를 서사화한다.³⁹⁾ 주인공 고영림은 감정에 솔직하고 기성 윤리에 저항하는 ‘불량한’ 존재인 동시에 아버지와 오빠의 방탕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랑한’ 존재이기도 하다. 강한 개성과 정의감으로 무장한 채 새로운 세대의 윤리와 청년다움을 구현하는 현대 여성으로서, 그녀는 기성사회의 관점에서 탈선으로 간주되는 강석운과의 연애를 성장을 위한 선택으로 긍정한다. 강석운과 고영림의 탈선한 연애는 가정낙원 설을 강변했던 중년남성 강석운에게는 지식인의 위선, 자신의 가치관과 논리의 모순을 폭로하는 부정적인 사건이지만, 감정에 솔직한 대학생 고영림에게는 욕망의 순수한 추구를 통한 성장의 계기로 작동하는 것이다. 대학생 고영림과 명동마담 이애리는 최신 스타일의 패션을 경쟁적으로 펼쳐 보이듯 서로의 욕망과 행동을 부채질한다. 똑같이 세련된 패션을 구

39) 류경동은 1950년대 김내성의 신문소설이 ‘생리와 윤리의 부조화’라는 인간성의 본질이 가진 모순성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애인』과 『실낙원의 별』에서 전후 한국사회 속 성애를 목적으로 교환의 논리가 채용된 자유연애와, 낭만성이 강조되는 진실한 연애의 형식을 현상해 보인다고 본다. 류경동, 「1950년대 김내성의 신문소설에 나타난 ‘연애’ 연구 : 〈애인〉과 『실낙원의 별』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35호,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6, 211-233면 참고. 이선미는 『실낙원의 별』이 성적 자유의 문제를 새로운 여성意識의 출현과 그에 따른 새로운 남녀관계와 삶의 방식으로 포착한 점에서 1950년대 변화를 예민하게 반영한 작품이라 평가한다. 이선미, 「연애소설과 젠더 질서 재구축의 논리」, 『대중서사연구』, 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189-199면 참고

사하고 유부남과의 불륜을 감행한다는 점은, 그들이 사회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명동청년으로서 현대성의 자질을 공유함을 암시한다. 그들은 모두 낡은 시대의 감각을 파괴하고 기성의 윤리에 도전하며 현실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조롱하는 존재이다. 여사무원에서 명동 댄스홀 마담으로 전신하는 애리는 “몬로나 헤프번이 왔다가 울고”⁴⁰⁾ 갈세련된 스타일, 현대적인 감각과 유혹적인 육체, 미소 등 자신의 육체와 행동 하나하나를 상품으로 취급하며 미학적으로 연출한다. “『애리씨의 그 웃음은 뭐요? 계산에 드는 거요?』”(124) 웃음부터 키스와 윙크, 악수와 포옹까지 모든 것을 그에 걸맞는 자본으로 교환되어야 할 상품으로 전시할 때, 이는 교환의 합리성과 냉정한 둔감의 현대성을 극대화한 가운데 재건 자본주의 사회의 이면에 가로놓인 가부장적 위계성에 대한 비판으로 기능한다.

퇴근 시간이 넘어도 고전무가 자리를 뜨지 않으면 좀처럼 사원들은 퇴근할 생각을 갖지 못한다. 규측상으로는 여덟시 반 출근에 다섯시 퇴근으로 되어 있지만 이 규측이 제대로 실행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중략) 그만큼 오늘의 중역 계급은 직권 이외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법이 어디 있는냐고, 애리는 이 회사에 취직해온 그날부터 이 규측대로 퇴근 시간만 되면 또박또박 사무실을 나가 버렸다.(138)

여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녀는 현실 사회에서 회사의 규칙과 무관하게 뒷사람이 퇴근하지 않으면 퇴근하지 못한다는 위계성의 논리를 비판하며, 현실의 부패가 바로 (교환의) 규칙을 무시하고 규칙에서 어긋난 희생을 강요하는 데 있다고 맞선다. “살인 강도만이 악은 아냐요. 온갖 약속 위반은 모두 다 악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여덟시간 반씩 일해 주고 한달

40) 김래성, 『실낙원의 별』, 『경향신문』, 1956-1957) 한국문학전집 24, 민중서관, 1959, 122면

만에 이만 칠천환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입사했으니까요.”(189) 그녀는 자본과 노동의 교환논리를 철저히 따르고 지키며 이를 넘어서는 것을 살인강도와 같은 악이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미소, 윙크, 악수, 포옹에 이르기까지 유혹 행동의 모든 것을 교환되는 상품으로 간주하며 딱 그만큼의 자본을 그녀는 요구하고 받는다. 이처럼 교환과 계산에 철저함으로써 그녀는 역설적으로 가부장적 권위에 반기를 들고 기성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성실한 대학생 한은주와 파리 유학을 거친 중년 지식인 박창렬의 연애를 그리는 장덕조의 『격랑』에서는 기성사회의 윤리 질서에 순응하는 여대생 은주와 대립하는 자리에 당돌한 틴에이지 은영과, 명동의 타이피스트이자 아프레겔 최금희가 배치된다.⁴¹⁾ 세련된 스타일을 전시하는 명동족 최금희는 계산과 교환의 논리에 충실한 가운데 기성윤리의 고루함을 지적하며 현대적인 엔조이의 가치, 다시 말해 “행동에 있어 윤리나 도덕의 제약을 받지 않”⁴²⁾고 자연스러운 감정과 본능에 따라야 함을 이야기한다. 최금희와 마찬가지로 틴에이지 한은영 역시 자신의 육체 이미지를 거래함으로써 욕망을 충족하는 존재이다. 명동의 다방과 백화점을 오가며 그녀는 은주에 대한 박창렬의 그리움을 이용해 자신이 언니와 비슷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원하는 물건을 얻어낸다. 은영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놀고먹으며 명동의 다방과 거리, 영화관과 백화점을 오가며 사치스러운 상품을 탐닉한다. 화려하고 강렬하게 살고 싶은 욕망과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일을 하고 싶지만 일로는 제대로 생활조

41) 진선영은 장덕조의 『격랑』에 대한 분석에서 1950년대 대중연애소설이 사랑의 정열에 휩싸인 명동형, 아프레겔, 전후파 여성인물들을 통해 애욕적 욕망을 발산한 열정적 사랑을 전면화한다고 지적한다. 최금희나 한은영은 개인의 욕망 실현과 성적 자유를 서구적 교양이나 근대적 감각으로 습득한 인물로, 절박한 자기표현으로서의 긍정과 타락한 윤리의 부정성이 모두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진선영, 「1950년대 장덕조 대중연애소설의 변화와 관습-『격랑』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333-336면 참고

42) 장덕조, 『激浪』(『경향신문』, 1957.12.1-1958.5.31), 신태양사, 1959, 296면

차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가 꿈꿀 수 있는 것은 돈 많은 남자와의 결혼이나 후원자와의 거래가 될 따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레의 길이란 은영에게 있어 타락이 아니라 탐구의 길이다. 열악한 전후 사회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 보려는”(375) 절박한 심정에서 추구하는 방향이자 모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영은 아니 그같은 소녀들은 살기 위하여 방황하는 것이다. (중략) 아무 자신이 없으면서도 거진 맹목적으로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돌진해 보려는 의욕을 가지는 것은 봉건적인 성인(成人)들이 옳다고 정해놓은 애정의 길, 혹은 연애의 순수성이나 결혼의 윤리 같은데 대한 회의 때문이 아닐까. 이같은 과거의 도덕관에 대한 의문과 반항때문인 것이다.

세상에서는 그런 소녀를 가리켜 「아프레」니 「불량소녀」니 한다. (중략) 은영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타락이 아니라 탐구라 박창렬은 생각한다. (376)

중년 지식인 박창렬은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미발달 자본주의 사회에서 틈에이저들이 맹목적으로 새로운 것을 향해 돌진하는 의욕이야말로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윤리나 봉건적인 규율에 회의하는 자세이며, ‘과거의 도덕관에 대한 의문과 반항’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기성의 윤리와 규율에 회의를 표하고 그에 저항해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는 틈에이저를 사회는 불량소녀 또는 아프레로 낙인찍지만, 소설은 박창렬의 시선을 빌어 그것이 단순한 타락이 아니며 생에 대한 진지한 탐구라고 설파한다.⁴³⁾ 명동 청년의 일견 타락한 듯 보이는 발랄함과 사치, 기성의 윤

43) 사치소비에 대한 사회적 배경은 1950년대 밀수의 시대에서 5.16 이후 군사정권의 금지의 시대로 이어지며, 소비를 통해 자유주의적이고 다원화된 욕망을 분출하고자했던 여성 청년문화를 퇴폐로 비난하는 사치소비 혐오문화를 확산했다. 류경동, 「1970년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소비 주체에 관한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2권 2호,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2021, 198-199면 참고

리를 뛰어넘는 당돌함까지도 현실에 대한 저항이자 낡은 규율에 대한 엄증이며 새로운 생활에 대한 모색이자 현대적 가치에 대한 탐구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대중문화가 명동청년, 틴에이지의 내면을 “적어도 본인 이외의 사람들이 볼때에는 선뜻 이해가 안가는 「아브노말」한”⁴⁴⁾ 것으로 구경거리화 하는 것과 달리, 『격랑』은 명동 청년의 내면을 전후 사회의 현실에 대한 탐색이며 자신의 개성과 자유를 찾기 위한 일탈이자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로 의미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1950년대 다양한 소설에서는 기성 사회에 맞서 자유로운 개인의 욕망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향유하며, 열악한 전후 현실 속에서 삶을 진지하게 탐색하고 실천하는 존재로서 명동청년의 미감과 의미가 형상화된다고 하겠다.

4. 명동 마담의 선정성과 계몽성

화려한 소비문화의 중심지로서 명동은 여성의 공간으로 환기된다. 1950년대와 60년대 초 대중문화에서 명동족은 명동거리의 주인공으로 지목되는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 명동 마담들로 대표된다. 가령 1964년 영화 「명동에 밤이 오면」의 광고문구는 “華麗한 明洞族 들의 哀切한 裏面世界! 「明洞에밤이오면」”⁴⁵⁾이다. 명동의 많은 다방과 바의 마담들은 50년대 소설에서 미망인의 고독과 욕망을 내포한 채 그 육체적 화려함과 스타일의 전시를 통해 명동을 대표하는 선정적인 구경거리로 부각되는 존재들이다.⁴⁶⁾ 그들의 세련된 의상과 스타일은 빈곤한 한국의 현실이 아닌 프랑

44) 「세女高生の 連鎖陰毒」, 『조선일보』, 1962.2.13

45) 『경향신문』, 1964.10.9. 이형표 감독, 최은희, 남궁원 주연의 이 영화는 명동마담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미망인의 육체와 애욕을 둘러싼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46) 김복순은 1950년대 소설과 대조해 1960년대 '여성육체 중심성의 시각적 쾌락을 기저로 하는 새로운 선정성'을 지적한다. 1950년대 여성이 그려지는 방식은 육체 자체가 아닌, 공적 공간에 진출한 여성과 물신주의로 그득한 거리풍경이 주는 시각적 쾌락에 초점이 있었다면 1960

스 파리나 미국 뉴욕을 연상시키는 이국적 풍경으로 자리한다.

1950년대 ‘명동백작’ ‘은성의 그림’으로 불린 이봉구가 발표한 소설 「여수」는 명동 스탠드바 ‘하바네라’의 마담인 미망인 영월의 화려한 한편 쓸쓸한 내면을 서사화한다. 마담 영월은 명동거리의 손님들 사이에서 1930년대 프랑스의 가수이자 배우인 다미아의 얼굴을 닮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날 밤은 마치 「다미아」를 이곳서 만나는 것 같다고 흥분하는 사람이 있게끔 영월의 얼굴과 표정은 애수 서린 「다미아」를 연상케 해주는 매혹적인 얼굴이요 타이프다.”⁴⁷⁾ 그것은 명동거리를 폐허의 가난한 현실이 아니라 화려하고 낭만적인 세계, 〈글루미 선데이〉가 울려퍼지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파리 몽파르나스로 연상하는 것과 비견된다.

그러나 실상 명동족 영월은 남편의 죽음을 허망해하는 애수어린 미망인과 허영에 떠서 바의 마담 노릇을 하는 아프레걸 사이에서 균열하는 존재이다. 영월은 스탠드바 하바네라를 취미삼아 경영한다고 생각하며 “내가 「가오 마담」인가, 누가 버릇 없이 보구 싶다는 거야, 보구 싶은 것은 자기네 자유고 나는 싸구려 마담이 아니라”(46)고 주장하지만 하바네라를 드나드는 남성들은 그녀를 희롱의 대상으로 간주할 뿐이다. 다미아를 연상시키는 이국적 아름다움과 낭만적 감수성이란 몽상에 불과하며 현실의 육체는 싸구려 스캔들이나 강패의 희롱에 소비되는 것이다. 명동마담이란 양공주와 구분되기 어려우며, “생활을 위하여 수천환 또는 수백환의 화폐와 간단히 교환되는 양공주의 정조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육체적 향락을 위하여 무심코 던져주는 이뿌레 여성의 정조 또는 허영의 댓가로서 지불되는 소위 값싼 소위 명동숙녀의 정조, 타오르는 중년의 정욕에 사로잡혀 분별없이 배급되는 소위 마담족의 정조”⁴⁸⁾라는 비판처럼 퇴폐, 탈선

년대에 들어 여성육체 중심의 시각적 쾌락이 선정성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김복순, 「산업화의 최종심급과 재현의 젠더-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7호, 한국현대문학회, 2009, 417면)

47) 이봉구, 「旅愁」, 『한국문학전집 27-이봉구, 임옥인』, 민중서관, 1959, 7면

의 대상으로 동일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소설에서 영월과 유라를 비롯한 명동거리 마담들은 양공주나 아프레와 교차되는 위치에서 스스로를 지적 교양을 갖춘 존재로 차별화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책 가게는 날이 갈수록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 요릿집, 나사집, 양품점, 새플쁘드장이 생겨 판을 치는 풍경이란 망조가 드는 슬픈 풍경이지 뭐예요!(중략) 문화인과 문화사업가들이 이런 데서 대접을 받고 빠기셔야 옳자- 우리 같은 패가 환영을 받아서야 되나요- 이게 모두 정상적인 것이 못 되는데 원인이 있어요. 미안합니다.』(12-13)

자신들이 경영하는 사치 복장업과 유흥업으로 큰 이윤을 남기기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문화인에게 영감을 주는 교양인으로서 내세움으로써 그들은 아프레의 낙원에서 벗어나려 한다. 사치 복장업이 융성하는 명동거리의 현실을 비판하고, 파산한 출판업자를 대접하거나 영화제작자의 의기를 북돋으면서 그들은 문화예술인의 세계에 스스로를 투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명동 마담인 동시에 대학 출신의 교양인으로서 그들은 자신의 화려한 외양과 사업이 미적, 문화적 감수성의 환기를 통해 현실 계몽의 의미를 가지는 것임을 암시한다. 이를 위해 강조되는 것이 아름다운 향기에 대한 감각과 순정의 낭만이다. 문화인의 계몽에 동참하기 위해 그들의 고독은 정신적인 아름다움, 애수로 승화해야 하며 그러한 승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아름다움에 대한 공감, 미적 세계에 대한 지향이 되는 것이다. 영월은 진한 유과의 향기를 싼 값에 산다는 것을 거부하며(“『그 진한 향기를 삼십환에야 살 수가 있어요, 백환도 미안한데.....』”(17)) 영화 제작자와의 사랑을 불륜의 추악함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없는 순정의 애수로 귀결짓는다. 이처럼 「여수」는 지식인, 문화인의 공적 계몽의 자리와 미망인의 고독 사이에서 명동 마담을 아프레걸의 선정적인 육체가 아니라 낭

48) 김기두, 「여성과 정조」, 『여원』, 1958.11, 160면

만적 순정의 대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봉구의 「여수」 속 낭만적인 분위기와 달리 1950년대 여성에게 명동은 전후 사회의 일상과 연결된 노동과 소비의 공간이었다. 특히 명동의 양장점 디자이너들은 상품의 사치성과 직업의 공공성이 교차하는 존재로⁴⁹⁾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는 주체인 동시에 양장을 실생활에서 ‘활동적이며 아름다운 옷’으로 환기하는 역할을 맡은 주체이기도 했다.⁵⁰⁾ 1950년대에 여성의 양장은 사치와 허영을 이유로 비판되는 대상이었다. 가령 남성의 양복과 달리 여성의 복장에 ‘양장’이란 표현을 쓰는 것에는 양장이 “實用面을 僞主로하는 것이아니라 美的인 粧飾面에 置重되는 때문일지 모른다”⁵¹⁾는 지적이 따르는 것이다. 1950년대 대중소설에서 명동의 양장사, 디자이너는 기술 자립의 주체이자 사치스런 구경거리라는 모순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령 박용구의 「오월은 무르녹아」에서는 명동 양장점의 유능한 경영자이자 “핑크색 세에타아에 곤색 양복바지를 입었으며, 곱게 다듬은 얼굴”⁵²⁾을 한 세련된 여성 디자이너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손님을 대하면 농은 다 어디로 갔는지그저 싹싹하고 비위를척척 맞추워 주었고, 일하는 처녀들이 뜻대로움직이지 않으면 서슬이 퍼렇게 꾸지람을 하였다.”⁵³⁾ 양장점 경영자로서 명자는 능수능란하게 가게를 꾸려가지만 소설은 결말에서 명자의 뒤에 스폰서 남성이 있음을 서술하며 명동마담

49) 디자이너는 18세기 중엽 등장한 ‘마르상드 드 모드’에서 출발한다. 최초의 디자이너로 알려진 로즈 베르탱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디자이너로, 18세기 초 소비혁명기 다양한 상품의 여성복 부티크 여주인으로 패션을 선도하는 존재였다. 설혜심, 『소비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17, 91-97면 참고

50) 1950년대 명동 디자이너의 리더로 군림한 최경자 이외에, 서수연, 이종천 등이 디자이너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다. 박신미, 「제1세대 한국 패션디자이너 고찰-1950년대에 활동한 명동양장점 디자이너들의 행보와 작품 특성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 70, No. 2, 2020, 73면

51) 「女人洋裝 流行의所感」, 『조선일보』, 1959.6.20

52) 박용구, 「오월은 무르녹아」 『동아일보』, 1956.5.13

53) 박용구, 「오월은 무르녹아」 『동아일보』, 1956.5.17

의 타락한 육체를 암시한다. “서울 거리에서 이변화한 명동에다 이만한양 장점을 차린다는 것이 그리 손쉬운 노릇은 아니리라. 그렇다면 명자가 그만큼이라도 생활의 토대를 잡고 여유를 가질수 있다는것은 그남자를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⁵⁴⁾ 명자의 성공 뒤에 여성 기술자의 수완이 아니라 남성의 경제력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소설은 50년대 공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의 의미와 가치를 부정하는 가부장적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양장점을 경영하는) 명동 마담의 부정하고 타락한 육체에 주목하는 가부장적 시선과 달리, 임옥인은 미적 세계와 공적 계몽을 동일시하는 지식인 여성을 형상화하고자 한다. 양장과 치장에 대해 사치나 허영으로 비판하는 남성적 목소리와 달리 그녀는 매너와 미학의 측면에서 긍정하고, 여성의 양장과 치장이 소박한 자연의미를 조화하고 세련된 미로 끌어올리는 근면과 열의라고 해석하면서 허영이나 바람기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소박한 미를 정리된, 그리고 조화되고 세련된 미로 이끌어올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자연에의 역행이 아니라 자연을 정리하고 보조하며 살리는 길ियो 방법이라 하겠습니까.”⁵⁵⁾ 남성적인 관점에서 명동 마담의 생활력과 기술력을 부정하는 박용구의 「오월은 무르녹아」와 달리 임옥인은 여성 디자이너의 생활력과 기술력을 긍정적이며 계몽적인 것으로 형상화한다. 1958년에 발표된 장편소설 『젊은 설계도』는 지식인 남성 고혁의 배신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상흔을 가진 명동 ‘미아가레트 양장점’ 디자이너 강난실이 정신의학박사 민석호와 약혼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세련된 명동마담을 유능한 기술자이자 경영자로 그려낸다.

첨단 유행을 따르는 세련된 명동 마담으로서 난실은 전시되는 상품이자 구경거리인 동시에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복장관을 실천하는 계몽 사업가이기도 하다. “미스 김은 쇼오원도우에 여아복을 입힌 모델을 세우다

54) 박용구, 「오월은 무르녹아」 『동아일보』, 1956.5.22

55) 임옥인, 「새 시대를 위한 일곱가지 문답 : 미용과 악세사리를 허영이나 바람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여원』, 1956.10

말고, 난실을 어이없이 바라본다. 늘 새롭고 멋진 여주인 강난실의 모습에, 하루에도 몇번 씩은 놀라곤 한다.”⁵⁶⁾ 최신 유행의 스타일을 자신의 육체에 전시하는 존재로서 난실은 그 스타일이 세련되면 세련될수록 구경거리로 부각되며, 그 때문에 그녀를 둘러싼 스캔들이나 추문 역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의 위치와, 전위적인 패션을 체현한 구경거리의 위치 사이에서 소설은 명동족 디자이너 강난실이 내면적, 사회적 균열을 복장관의 실천이라는 계몽의 열정으로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다.

크림색 썸 드레스를 곤색 썸 드레스로 갈아입고 나와서 난실은 사나이의 앞을 자연스럽게 걸어보았다.(중략)

『잘 께매 드릴께 한 번 입어보세요. 반드시 이 스타일의 좋은 점을 곧 발견 하실거예요!』

부부는 그렇게 부탁한다고 하면서 돌아갔다.

손님 앞에서 굽신거려야 하는 것이 상도이기는 하지만, 난실은 그런 상도에서 보다 자기의 신념을 표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36)

난실에게 있어 자신이 구현하는 세련된 패션은 손님의 허영을 위한 것이거나 상도를 위한 비위 맞춤이 아니라 자신의 복장관, 양장관에 따른 신념을 관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용적이지만 전위적인 패션이 가져오는 소란을 접할 때에도 그녀는 직접 모델이 되어 세련된 스타일의 편리와 장점을 체현해 보임으로써 그 스타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설득한다. 자신의 육체를 통해 유행하는 스타일을 전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간편하고 실용적인 양장의 확산으로 의복 영역에서의 계몽을 이

56) 임옥인, 『임옥인 선집 : 젊은 設計圖』, (『조선일보』, 1958.6.15-12.14) 선일문화사, 1973, 39면

를 수 있다는 것이다. 화려하고 소비적이지만 오히려 현실을 개조하고 생활을 미학화하는 이중적인 자리에서, 그녀는 명동거리의 사치, 허황함을 비판하는 기성의 논리에 맞서, 세련된 패션이야말로 내면의 교양에서 오는 것이며, 교양에 맞춘 패션은 기괴한 것이나 허영이 아니라 미를 창조하는 예술임을 내세운다. “내면적 교양에 무관심한 사람은 외부의 멋두 낼 수 없지요.”(233) 이처럼 명동 마담을 명동 문화인과 동일시하며, 생활과 현실에 밀착된 예술로서 양장 디자이너의 세계를 긍정하는 데 『젊은 설계도』의 특이성이 있다.

소설에서 명동거리는 신형근, 고혁과 같은 명동 문화인과 강난실, 한정애, 김경희와 같은 명동 마담, 신영숙 등 대학생과, 추익태 같은 깡패들이 복잡하게 얽힌 구경거리의 공간이다. 모두가 세련된 외양을 과시하지만 문화인의 낭만과 마담의 아름다움, 대학생의 발랄함과 깡패의 무법성이 교차되며, 정체를 숨긴 존재의 서글픔과 쓸쓸함을 환기한다. “이 거리에 물처럼 범람해 있는 모든 인간 군상이 앞으로 보면 모두 명랑을 가장하고 있으나 뒤로 보면 허수아비 같이 쓸쓸해 보이는 까닭은 뭘까?”(41) 명동 문화인과 명동 마담, 그리고 명동의 대학생은 명동족의 이름으로 명랑하고 화려한 외양 속에 쓸쓸하고 허황한 내면을 공유하는 존재들이다. 화려한 외양과 쓸쓸한 내면, 높은 문화를 향한 눈과 열악한 현실에 디딘 발로 균열한 채 그들은 명동거리를 헤맨다. 이처럼 화려한 외양 속에 계몽의 꿈을 품지만 현실의 한계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는 명동족의 내면을 형상화하며, 소설은 계몽의 이상과 현실의 조화 가능성을 미와 편리를 조화한 양장에 대한 강난실의 신념을 통해 암시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른지두 몰라요. 그렇지만, 난 먼지가 일어두 이 거리가 좋아요. 먼지가 일면 일지 않두록 만들어보자는게 우리의 꿈이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구 침부터 그렇게 살기 좋았었나를..... 황무지를 개척하고, 거기에다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고 명랑하게 살기 위한 계획을 실천해 갔을 뿐에

요. 우린 그 결과를 보고 부러워 하는 거예요!』(45)

전후 현실의 열악함을 대변하는 명동거리, 사람의 사태와 먼지로 가득한 거리는 멀미가 날 정도로 염증을 느끼게 하지만 강난실과 민석호, 신형근과 김경희 등 명동마담과 문화인들은 어떻게 여기에 꿈을 실현할지, 어떻게 여기에 먼지 일지 않는 문화를 건설할지를 고민한다. 강난실과 이석호, 김경희와 신형근이 명동마담과 문화인으로서 각자의 설계를 완수하며 결혼에 도달하는 과정은 열악한 현실과 화려한 꿈 사이에서 그들이 구경거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몽의 주체로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먼지 이는 재건 사회의 현실 속 세련된 스타일과 멋을 추구하기에 선정적인 구경거리로 부각하는 명동마담, 명동형 인간의 육체는 현실을 넘어 파리와 뉴욕의 꿈을 몽상하기에 도피적 낭만을 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미의 세계를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 공적 열정이 어우러질 때 지향점으로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봉구, 임옥인의 소설에서 명동 마담의 육체는 선정적인 스캔들의 대상으로 소비되기도 하지만 미적 지향성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계몽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1950년대 대중문화 속 ‘명동족’ ‘명동형’, ‘명동청년’, ‘명동숙녀’의 표상을 분석하고, 1950년대 소설에서 전후 원조경제 재건사회 공간의 새로운 인간형에 대한 탐색이 가진 의미를 재고해 보았다. 1950년대 명동은 소비와 향락의 퇴폐적인 공간이자 문화예술인의 낭만이 교차되는 공간이다. 명동거리에서 사람들은 최신유행의 스타일과 매너, 새로운 풍속과 취미를 드러내는 다양한 인간들을 구경하고 그들 사이에 생겨나는 흥미로운 사건과 스캔들을 탐욕스럽게 소비했다. 1950년대 다

양한 장편소설에서 명동족, 명동청년, 명동형, 명동숙녀를 둘러싼 사건들은 일상의 공간을 선정적인 구경거리로 재편해 보인다. 장덕조의 『격랑』, 한무숙의 『빛의 계단』, 김래성의 『실낙원의 별』, 이무영의 『계절의 풍속도』 등 1950년대 대중소설에서 명동은 온갖 계층과 세대, 인연과 욕망의 진열창으로서 주요한 배경을 이룬다. 명동족으로 호명되는 마담이나 대학생은 대중문화에서 탈선이나 사치의 혐오스런 이미지와 결합되곤 한다. 1950년대 소설에서 명동청년은 세련된 교양과 능란한 화술, 뉴욕커, 파리 지영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존재로 발견되며, 그 외양과 태도가 가진 명랑성-현대성과 불량성-도피성 사이에서 유동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들은 기성 사회에 맞서 자유로운 개인의 욕망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향유하며, 열악한 전후 현실에서 삶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한편 1950년대와 60년대 초 대중문화에서 명동거리의 주인공으로 환기되는 화려한 옷차림의 명동 마담들은 이봉구의 「여수」나 임옥인의 『젊은 설계도』 등에서 지식인의 공적 위치와 화려하고 선정적인 구경거리의 위치 사이에서 균열하면서 미적 지향과 계몽성을 구현한다. 아프레, 전후과에서 태양족, 비트족에 이르기까지 50년대 명동거리의 최첨단 유행과 소비문화를 즐기며 기성 윤리에의 도전과 새로운 질서에의 탐색을 실천한 명동족, 명동형 인간은 다양한 대중소설에서 특징적인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래성, 『애인』, 삼중당, 1956
김래성, 『실낙원의 별』, 한국문학전집 24, 민중서관, 1959
이봉구, 「旅愁」, 『한국문학전집 27-이봉구, 임옥인』, 민중서관, 1959
임옥인, 『임옥인 선집 : 젊은 設計圖』, 선일문화사, 1973
장덕조, 『激浪』, 신태양사, 1959
한무숙, 「빛의 계단」, 『한국대표문학전집』 8, 삼중당, 1972

2. 단행본

- 권보드레,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출판부, 2009
김미선, 『명동 아가씨 : 근현대 여성 공간의 탄생』, 마음산책, 2012
설혜심, 『소비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17
이동연, 『문화부족의 사회』, 책세상, 2005
이시하라 신태로, 『太陽의 季節』, 범우사, 1978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6
질 리포베츠키, 이득재 역, 『패션의 제국』, 문예출판사, 1999
바네사 슈와르츠, 노명우·박성일 역, 『구경꾼의 탄생』, 마티, 2006
잭 케루악, 이만식 역, 『길 위에서』, 민음사, 2009

3. 논문

- 권미경, 「차이와 차별 : 한국 근현대 사치 소비의 문화사」, 이화여대 박사, 2017
김복순, 「산업화의 최종심급과 재현의 젠더-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 문학연구』, 27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09, 407-449면
김윤경, 「1950년대 근대가족 담론의 소설적 재현양상- 한무숙의 「빛의 계단」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62호, 한국비평문학학회, 2016, 31-57면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겔」 표상의 의미-여성잡지 「여성계」, 「여원」, 「주부생활」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연구』, 1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77-209면
김지윤, 「1950~60년대 재야공간으로서의 다방과 문인 네트워크-문단의 「명동시대」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7호, 2021, 39-88면
김진하, 「제비의 귀천-문예다방 60년」, 『근대서지』 18호, 근대서지학회, 2018, 45-97면

- 김현주, 「김내성 후기소설 〈애인〉에 나타난 욕망과 윤리」, 『대중서사연구』, 21호, 대중서사학회, 2009, 203-236면
- 류경동, 「1950년대 김내성의 신문소설에 나타난 ‘연애’ 연구 : 〈애인〉과 〈실낙원의 별〉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35호,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6, 211-233면
- 류경동, 「1970년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소비 주체에 관한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22권 2호,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2021, 193-214면
- 민도정, 「1950년대 명동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이봉구의 수필 「명동백작」을 기초로 하여」, 동국대 석사, 2008
- 박신미, 「제1세대 한국 패션디자이너 고찰-1950년대에 활동한 명동양장점 디자이너들의 행보와 작품 특성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 70, No. 2, 2020, 73-97면
- 박완서, 「1950년대 ‘미제문화’와 ‘비로도가 관치던 거리」, 『역사비평』, 15호, 역사문제연구소, 1991, 106-112면
- 안서영, 「‘아프레겔’의 패션 소비를 통해서 본 1950년대 한국 소비문화」, 연세대 석사, 2011
- 이선미, 「연애소설과 젠더 질서 재구축의 논리」, 『대중서사연구』, 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175-210면
- 조미숙, 「「빛의 계단」에 나타난 1950년대 서울의 장소성」, 『통일인문학』, 79호,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223-252면
- 진선영, 「1950년대 장덕조 대중연애소설의 변화와 관습-「격랑」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315-341면
-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겔」, 『대중서사연구』, 18호, 대중서사학회, 2007, 119-153면
- 홍윤표, 「전후 일본의 족(族) 문화와 ‘천황’의 부재」, 『아시아문화연구』, 19집,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249-270면

<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Myeongdong people in novels of the 1950s

Kim jue-le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stwar modern society, the meaning of the search for new values and ethics in terms of generation and gender through analysis of the representation of Myeongdong people in the 1950s. In popular culture in the 1950s, Myeong-dong is a decadent space of consumption and pleasure, and a space where the romance of cultural artists intersects. Myeongdong people and Myeongdong-type, who enjoyed the edge fashion and consumer culture of Myeong-dong street in the 50s, challenged established ethics and practiced search for a new order, formed a characteristic semantic network in various popular novels. In various novels in the 1950s, such as Jang Deok-jo's 『Raging wave』, Han Moo-sook's 『Stairway of Light』, Kim Rae-seong's 『Star of Paradise Lost』, and Lee Moo-young's 『Seasonal Wind Speed』, the incidents surrounding the Myeongdong people, the Myeongdong young man, the Myeongdong-type, and the Myeongdong lady seem to reorganize daily life into a sensational spectacle. In these novels, the Myeongdong youth is embodied as a being floating between cheerfulness-modernity and delinquency-escape. They reveal their individual desires against the established society and appear as beings who explore new values based on the logic of exchange. Myeongdong madams of splendid style evoke the dream of the aesthetic world while cracking between the enlightened

position of cultural figures and the position of sensational spectacle in Lee Bong-gu's 「Yeosu」 and Lim Ok-in's 『Young Blueprint』.

Key words: Myeongdong People, Myeongdong Youth, Myeongdong Madam, Spectators, 〈Stairway of Light〉, 〈Raging Wave〉, 〈Star of Paradise Lost〉, 〈Young Blueprint〉

투 고 일: 2022년 12월 1일

심 사 일: 2022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6일

수정마감일: 2022년 12월 26일